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하달과 해병대 병력의 전남 배치 계획을 담은 군 기록이 5·18기념재단을 통해 발굴됐다. 사진은 5·18 당시 발포명령 하달과 해병대 병력 목표 배치 계획이 담긴 문 문건. (5·18기념재단 제공)

# 20일 23시15분 ... 발포명령 하달(1인당 20발)

## 12시간 뒤 공수부대 도청앞 집단발포

5·18기념재단이 24일 공개한 '광주 소요 사태(21-57)' 문서는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1980년 5월21일 새벽 00시20분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18민주항쟁 4일째를 맞은 5월21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광주 곳곳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화려한 연등이 걸려 있었지만 광주시민들은 살육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첫 발포는 19일 오후 4시5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와 계림파출소 사이에서 일어났다. 11공수여단 63대대 부대원이 발포했고 당시 조대부고 3학년 김영찬군이 유탄을 맞았다. 이튿날인 20일 밤 9시50분께 광주역 앞에서 제3공수여단은 시위대

5·18재단, 보안부대 작성 문서 공개...광주에 무슨 일이?  
20일 밤 9시50분 3공수 광주역서 발포 시민 2명 사망  
21일 분노한 시민들 공수부대 만행 규탄 도청 앞 집결  
오후 1시께 11공수 앞드려싸·무릎짜 자세로 조준사격

차량에 의해 부대원이 사망하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2명이 사망한다.  
제3공수여단은 시위로 인해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철수한다. 하지만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히며 시민들을 방망이로 구타하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발포명령이 나오게 된다. 문서에 적시된 '밤 11시 완전 무장한 폭도가 1만여명에 달하고 있음' 상황과 비슷한 시간으로 15분 뒤인 밤 11시15분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병력(3공수여단)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1인당 20발)이 떨어진다.  
21일 오전 8시 동이 트자 분노한 광주시민 수만명은 사체 2구가 실린 손수레를 앞세우고 공수부대의 만행을 규탄하며 도청 앞으로 모여든다. 시위대들이 들고 있던 무기는 기껏해야 각목이나 화염병 따위였다.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시민 대표 4명이 7공수여단 35대대장의 안내로 도청에서 장형태 전남도지사와 면담하고 공수부대의 철수, 연행자의 석방, 과잉진압의 사과, 계엄사령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오전 10시께 당시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탈취해 도청 앞 군 저지선으로 돌진한다. 비슷한 시간 도청 앞을 지키던 7공수 35대대는 11여단 63대대와 교대

한다. 교대한 11공수여단 중대장 이상과 일부 하사관들에게 실탄이 분배된 상태였다.  
시민들은 낮 12시까지 공수부대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오후 1시께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  
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동구청 상황실지)과 동시에 앞드려 싸, 무릎 짜 자세로 사격이 이뤄졌다. 이때 도청 주변 고층 건물 옥상에서도 저격수들이 배치돼 시민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입증됐다. 또 금남로 상공에서는 무장한 헬기가 전일빌딩 등 민간인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무차별 사격한 사실이 최근 국과수 감정을 통해 드러났다.  
집단 발포 이후 시민들은 본격적으로 무장을 시작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찰서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했다.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에는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려는 지시('작전지시 80-5호')가 내려오면서 광주는 봉쇄된다.

### 민주·국민의당 '5·18 특별법안' 9월 정기국회서 최우선 처리해야

호남의 지지 기반을 공유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5·18 진상 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5·18 진상 규명 특별법안을 양당의 9월 정기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당은 24일 문 대통령의 5·18 당시의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및 헬기 기종 소사 의혹에 특별조사 지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대기 문제를 반드시 특별조사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누가 광주 시민을 향해 최초 발포 명령 내렸는지를 명백히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조사 특별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5·18 관련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진상 규명을 하려는 청와대의 의지와 조사 속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진상조사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소 야대의 다당 구도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한다고 해도 보수 야당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진상조사 특별법 처리가 자칫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단한 공조 아래, 바른정당을 설득하고 국민적 진상 규명 요구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광주의 목소리가 담긴 법...5·18 모든 의혹 조사 가능"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대표 발의 최경환 의원

80년 5월의 진상 규명이 사회적, 시대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최경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의 특별법은 5·18 단체들은 물론 민변과 전남대, 광주시 등에서 직접 참여해 80년 5월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광주의 목소리'가 결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특별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의 발목 잡기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광주일보는 24일 최경환 의원을 만나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진상조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5·18 당시의 인권 유린 범죄, 암매장 의혹, 집단 발포 및 헬기 사격 명령자, 과거 국방부와 보안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들이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통과될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방위에서 진상조사 특별법과 다른 5·18 법안과의 병합 심사를 통해 법사위로 넘기고 11월 말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나.  
▲국유 보수 정당이라고 해도 민심의 거대한 요구를 막을 순 없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데 5·18 단체에서는 '우리는 뗏목이니 그것도 조사하자'고 한다. 북한군 개입설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수도 있다. 정기국회 이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바른정당과의 특별법 연대는.  
▲잘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집권 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이게 호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변방법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은 진상조사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해야 한다. 말로만 광주를 들먹이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특별법 대표 발의 배경은.  
▲지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여당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했다. 특히, 특별법은 5·18 단체는 물론 5·18 재단, 민변, 전남대, 광주시 등이 참여해서 만들었다. 광주의 역량이, 광주의 목소리가 담긴 법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진다.



최경환 의원

## 무안출발 일본여행

가을맞이 여행 & 추석 연휴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8월 24일(목) ~ 10월 9일(월)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 환

---

###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8/24(목) ~ 9/21(목) [매주 월, 목요일 출발]**

북큐슈 펜션 실속 특가!!

9/7(목), 9/14(목) [단, 2회]

아마가세 온천 별장 2박 499,000원부터

알차게 떠나는 북큐슈 [실속] 599,000원부터

항공 3박4일

북큐슈 4일 5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아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 · 오사카 4일 799,000원부터 [9/18(월) 단, 한번!]

선박+항공 2박3일 [단, 2회!]

9/12(화) 나가사키 · 군함도 499,000원부터

9/19(화) 북큐슈 · 벵부 · 시모노세키 34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황에 따라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부터(TAX포함)**

###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6(금)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최소 4인 이상 예약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아마구치 1,098,000원부터

### 다낭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다낭 · 후에 · 호이안

베트남항공(VN)

17, 11/17(금)~18, 5/18(금)

화출발(3박4일) [실속] 699,000원부터

금출발(3박5일) [실속] 799,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5일

티웨이항공(TW)

8/23(수)~10/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

---

### 대만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실속 599,000원부터

품격 699,000원부터

### 시엠립(캄보디아) 4박5일

(무안출발)

스카이킹항공

추석 선착순 한정 특가

9/30(토) [단 1회] 1,249,000원부터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